FX Market Daily

2026-06-15

전일동향

전일대비 9.10원 하락한 1,519.80원에 마감

12일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0.90원 하락한 1,518.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주식 수급이 하락을 견인하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 강세와 결제 수요가 추가 하락을 제한하며 전일대비 9.10원 하락한 1,519.8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5.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8.52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18.00	1522.40	1516.90	1519.80	1520.40
엔화	955.65	956.25	945.48	948.52	-
유로화	1770.13	1771.43	1753.30	1757.84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77	-3.74	-7.53	-14.44
결제환율(수입)	-0.42	-2.3	-5.24	-10.87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중동 종전 타결에...1,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519.80) 대비 1.05원 하락한 1,517.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이란 협상 타결에 따른 유가 급락과 위험선호 심리에 하락 전망한다. 간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하여 19일 서명할 것이라는 평화 협정 타결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가 유입되며 금일 달러/원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핵 문제와 이란 자산 해제,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 등 남은 과제들은 주시해야 하겠지만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환율에는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중동 리스크 완화가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25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자금 유입세가 지속된다면 하락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주말간 한-미 외환당국 공조 발표 등도 원화 강세 전환에 우호적 여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중이던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저가 매수세는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01.00 ~ 1519.33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2040.92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5원↓
- ■ 美 다우지수 : 51202.26, +353.51p(+0.7%)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2.06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74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